

- ... “지금이라도 차 한대만 끌고나가면 몇 ... ○
- ... 백만원은 금세 벌 수 있는데 하는 유혹 ... ○
- ... 을 가끔씩 받습니다. 길거리의 젊은 여자 ... ○
- ... 가 다 상품이니깐요.” ... ○
- ... 우리 사회의 온갖 병리현상이 함축된 ... ○

인신매매범 속죄고백

- ... 최악의 수석어인 ‘인신매매범’이라는 딱 ... ○
- ... 지가 붙여진 정정남(가명·33·인천시 남 ... ○
- ... 구 주안동)씨가 7일 지난날을 속죄하는 ... ○
- ... 뜻으로 자신이 벌여왔던 악행을 낱말이 ‘고 ... ○
- ... 백’했다. ... ○

정씨는 이미 86년 5월26일 인신매매범에게 적용되는 형법법규인 영리유인·약취 혐의로 구속·수감돼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6월6일 출소했지만 곤궁한 살림살이를 꾸려가느라 그동안 한탕만...하는 유혹에 시달려왔다.

열두살짜리 딸의 해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다시는 범죄의 소굴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정씨는 이어 문씨를 “결혼하자”며 속여 충남 논산의 한 여관에 데리고 가 옥보인 뒤 대전시 대천동 풍년옥이라는 술집에 55만원을 받고 팔아버렸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문씨가 김새를 알아채고 도망치려 하자 문씨의 젓가슴 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바늘과 사인펜으로 문씨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문씨로 하여금 자포자기의 상태에

것이다.

우선 이들은 각종 일간지 등에 고급 카페나 살롱에서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 ‘월순임 50만원 이상 보장’ 등의 미끼를 던진다.

이러한 ‘PR통’으로 대상자를 끌어들이 때는 애초 전화가입자의 주소와는 다른 곳에 별도의 착신 전화를 설치하는 ‘착발신 분리방식’을 이용하거나 복덕방 등에서 며칠 동안만 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정씨는 구직광고를 통한 모집 방법과 함께 10대 소녀들이 많이 몰리는 나이트클럽이나 몰러스케이트장 등의 현장에서 직접 대상을 물색한 뒤 납치해오는 ‘빠리꾼’으로도 나섰다.

유인인 납치든 일단 데리고 오기만 하면 ‘염쟁이’들이 물건을 만들어낸다.

데리고 온 여성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우선 완력이 센 남자 여럿을 들여보내 집단으로 성폭행한 뒤 고참 윤락여성이 “기왕

정씨가 거래를 했던 곳은 펄택 역전, 송탄 철길, 전주 뚝너머, 속초 청학동 등 전국 각지에 걸쳐 있다.

인신매매여성을 지방으로 보내는 이유는 서울은 매춘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이 달리지 않거나 지방 소도시나 한촌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제멋대로 일하려는 여성이 드물기 때문이다.

주로 단골업주들에게 끌고온 여성을 팔아넘기거나 새로운 곳이라도 “아가씨 있는데 쓸래요”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면 십수명의 업주가 반색을 하며 물려든다고 한다.

이때 받는 금액은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0만~1백만원. 그러나 정씨의 역할이 매매가 정산되는 시점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끌려온 여성을 면접하는 포주는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게 됐느냐”고 자상하게 묻는 척하며 길들이진 정도를 점검한다.

때로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91,
12. 8

결혼미끼·광고·납치등 수법 갖가지 성폭행뒤 문신·협박으로 체념 유도

는 맹세와 다짐으로 정씨는 자신의 범행내용과 수법 등을 <한겨레신문>에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선량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법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언론을 통한 자신의 고백이 인신매매범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에 앞서 인신매매나가출 등으로 딸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모임인 민주시민운동연합(의장 전채형)에 찾아가 인간적 부끄러움으로 참회의 눈물을 쏟기도 했다.

정씨는 구속 당시 문아무개(당시 20·여), 김아무개(당시 22·여)씨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으나 실제로 81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이 사창가에 강제로 넘긴 부녀자는 줄잡아도 1백50명이 넘는다고 털어놓았다.

정씨가 인신매매에 처음 손대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사용한 수법은 열차 안에서 만난 젊은 여자에게 그럴듯한 신랑감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86년 3월 정씨는 전라선 열차 안에서 문아무개씨를 만나 “나는 대통령 경호실 요원으로 특채돼 3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휴가차 나오는 중”이라며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적은 거짓 신분사항을 보여줘 상대방을 믿게 했다.



무너진 가슴

지난달 28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실종문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실종자 가족들이 잃어버린 딸 등 가족의 사진이 든 팻말을 들고 있다.

빠지게 했다.

몸에 흉터가 남은 여성들은 ‘정상적 결혼생활은 망쳤다’고 체념해 다루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정씨는 또 대상을 고를 때 고생하며 자라 결혼으로 가난을 털어버리고 싶어할 듯한 여성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으며 자신의 번듯한 외모와 능란한 화술이 한몫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 방법 말고도 ‘고전적’인 인신매매 수법도 사용했다.

81년말부터 용산역을 무대로 하는 인신매매조직에 가담해 3명이 한 조가 돼 활동을 벌인

이렇게 된 것 돈이나 벌어야 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달래 체념하게 하는 순서가 상투적이다.

그래도 완강히 저항하는 여성에게는 몸에 흉터를 내거나 강간장면을 사진찍어 “고향동네에 뿌리겠다”고 협박한다.

가끔씩은 물을 채운 드럼통에 휘발유를 조금 부어 불을 붙인 뒤 머리채를 붙잡고 집어넣었다 빼 완전히 혼절시키기도 한다.

정씨 일당은 일단 훈련이 끝난 여성들을 데리고 지방의 사창가로 ‘배달’에 나선다. 이런 윤락여성 공급책을 속칭 ‘인력거꾼’이라 부른다.

패거리들 손님으로 가장해 들여보낸 뒤 속마음을 떠보기도 했다.

이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빠져나가려는 기미가 보이면 포주는 바로 “왜 저모양이야”라고 일러바쳐 정씨가 다시 전보다 몇배 더 가혹한 방법으로 손을 보게 만든다.

고통스러운 옛 기억을 더듬어 내려온 정씨는 “갈갈이 찢겨버린 술한 여성들의 삶을 제가 무슨 수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 뒤 몇번이고 “용서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되뇌었다. <김의겸 기자>